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의 관계

: 행위 분야별 차이

Perceptions of Unethical Behavior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A Field-based Comparison

이상윤(Rhee, Sang Yoon)* · 이지문(Lee, Ji Moon)** · 박흥식(Park, Heung Sik)***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ptions of unethical behavior in the public sector and government employe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various fields of unethical behavior. Unethical behaviors were classified into 7 fields: public facilities & stationery, work hours, work behavior, budget implementation, relationships with supervisors or supervisory departments, personal behavior, and treatment of citizens. Building on this field-based typology, data were obtained from 17 government institutions or agencies for the purpose of empirical analysis. Out of the various demographic examined in this study, gender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emale government employees more frequently reported observing unethical behavior only in the field of public facilities and stationery and treatment of citizens in their workplace than male employees did. In explaining the perception of unethical behavior, union membership out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examined was also significant, but only with respect to the field of work behavior. This study shows that the perception of unethical behavior in the public sector is not much influenced by demographic variables in South Korea, except in the case of gender and union membership. Implications are drawn for ethics programs and further research.

Key Words : 비윤리적 행위(Unethical Behavior), 공직윤리(Public Ethics), 윤리적 민감도(Ethical Sensitivity), 공무원노동조합원(Union membership)

1. 서론

최근 들어 부패를 단순히 각종 법규나 책임을 일탈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좁게 규정하는 것에서 도덕적 규범의 유지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¹⁾

이처럼 부패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윤리에서 어긋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1) 국가청렴위원회(2005.12), 부패방지표준교재, p.5

결과적으로 부패의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윤리 문제에 접근한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기존 비윤리적 행위 원인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부패친화적 문화라는 추상적인 틀에서 탈피하여 공무원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비윤리적 행위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직윤리 프로그램(ethics training program) 운용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감안한 교육 실시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비윤리적 행위의 억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와 인구통계학적 요인간의 관계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많지 않다. 양자 간의 관계는 공직윤리와 관련된 다른 주제를 다룬 연구들에서 거의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였다. 기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비윤리적 행위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일반시민이 공직자보다 더 민감하게 인지한다는 것이었다(Deshpande, 1997; Deshpande et al., 2000 등).²⁾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부패, 비윤리적 행위를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여성 공직자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³⁾ 그러나 비윤리적 행위 인지와 배경요인 간의 관계는 그 반대의 연구결과도 혼재하고 있어, 어떤 안정적 판단은 쉽지 않고,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특정 변수, 예를 들어 연령이 낮을수록 비윤리적 행위를 보다 빈번히 또는 민감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연령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곧 연령이 공직자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 변수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은 다른 변수들과 달리 문화 의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대한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를 가감 없이 국내에 일반화하기도 힘들고 이에 근거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도 무리이다. 이는 비윤리적 행위 인지와 배경변수와의 관계는 행위 분야별로 대상과 내용의 차이 때문에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 공직사회의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있다면 이들의 영향 변수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둘째, 비윤리적 행위를 다양한 분야로 나눌 때 분야별 영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타 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주장에 비추어 노조원들의 비윤리적 행위 인지가 일반 공무원들의 그것과 다른가 등이 검토되었다.

배경변수들의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은 그동안 주로 공직윤리 연구의

2) 일반시민이 공직자보다 비윤리적 행위를 보다 더 민감하게 인지한다는 것은 다음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길리서치연구소(2002.10), 공직사회 부정부패 관련 국민여론조사보고서 및 공직사회 부정부패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여론조사 보고서 참조.

3) 이 영(2002), 여성과 국가투명성 제고 - 부패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국가경쟁력' 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2.4.23. 한겨레, 여성 사회참여 활발한 나라 부패 덜해. 2002.4.29 참조.

일부로, 또 부차적 관심으로 취급되었고, 연구 결과도 방법론상의 차이 때문에 대응한 비교가 힘들었다. 외국에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역할의 문화 제한적 특징 때문에 한국에서도 똑같은 것이라는 전제도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비윤리적 행위 인지와 특정 배경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검토를 한국 공직사회에 적용해 분석하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분야별 차이로 확대를 시도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비윤리적 행위 통제에 인구통계학적 접근이 과연 유효할 것인지, 공직자 윤리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은 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또한 공무원노조의 방향 등에 시사점,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II.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의 관계

1. 선행 연구

배경변수와 비윤리적 행위 인지 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Serwinek, 1992). Serwinek (1992) 정도가 드물게 직위를 통제하면서 배경적 특징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즉 연령, 성, 교육, 종교, 재직 연수, 결혼 여부 등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특히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했다.

대체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윤리적 태도 및 인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속성상 조직이나 업무 환경적 요인과는 별도의 개인적 차원의 접근(individual approach)에 의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 윤리적 판단 또는 의사결정(Roxas & Stoneback, 2004; Glover et al., 2002; 김호정, 2005 등), 도덕 또는 윤리적 민감도(moral or ethical sensitivity)(Swenson-Lepper, 2005; Ameen et al., 1996), 개인의 윤리적 가치나 태도 (Emerson & Conroy, 2004) 등에 대한 분석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측정 방법이 상이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연구 간에 일관성이 적고, 예측능력(predictive power)도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거나 관계와 영향의 구분도 분명하지 못했다. 또 직업 분야, 국가 등에 따라서도 다른 것이었다.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도덕철학(moral philosophy), 도덕 발달(moral development), 윤리교육, 마키아벨리주의(Machiavellianism) 등을 독립변수로 이용했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위 등과 같은 순수 인구학적 변수들(demographical factors)은 주요 관심 대상에 비껴나 있었다. 배경변수들은 고작해야 개인의 윤리적 가치나 태도, 직무수행의 윤리적 환경과 성격 등에 대한 연구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다(Glover et al., 1997: 109; Glover et al., 2002: 218-219).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는 윤리적 민감도 분석에서 가장 빈번히 취급되었다. 윤리적 민감도(ethical sensitivity)는 어떤 상황에서 윤리적 요소를 확인해 내고 다른 경쟁적 가치들과 윤리적 가치간의 비교 평가를 통해, 윤리적 행위로 나아가는 정도를 가리키는데(Swenson-Lepper, 2005: 205), 비윤리적 행위 인지는 특정 상황에

서 윤리적 요소의 식별, 그 상대적 중요성을 다른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분간해 내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윤리적 요소는 직무 환경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의 옳고 그름의 요소, 기준에 대한 것으로, 비윤리적 행위 인지의 민감도는 공직자가 다른 행위와 비교해 특정 행위나 요소를 윤리적 문제로 확인 또는 인식해 내고, 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Walsh (1995: 291)는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조직에서의 지위, 재직 기간,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의 직·간접적 경험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인지 등에 기초가 되는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의 구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2.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와 영향 요인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순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는 기존 연구들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노동조합 참여 등이, 그리고 비윤리적 행위의 판단이나 인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변수들로는 윤리교육, 도덕적 판단의 발달(moral judgment development) 등이 검토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배경변수 가운데 성별, 연령을 윤리 또는 비윤리적 인지와 판단, 의도, 행위 관련 변수로 가장 빈번히 다루었다.

Sparks & Johlke (1996: 883)는 세일즈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비윤리적 행위의 빈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를 연구했고, 그 결과 남자들에 비해 여자가 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ethical standards)을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Ameen et al., (1996)은 남자보다 여자가 부정직한 또는 문제가 되는 행위(questionable activities)에 대해 더 혹독한 평가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Deshpande (1997)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의 윤리적 적절성 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여성 관리자가 특혜 대우 대가로 받는 선물이나 편익을 남성 관리자보다 더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Deshpande et al. (2000)은 러시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Ekin & Tezolmez (1999) 역시 터키 관리자들의 윤리적 판단과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에서 여자들이 보다 윤리적 시각을 적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Roxas & Stoneback (2004: 161)은 8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덜 윤리적 반응을 나타냈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중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여자가 덜 윤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와 성별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거나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Glover et al., 1997; Serwinek, 1992; Tsalikis & Ortiz-Buonafina, 1990). Wahn (2003)의 연구는 인지가 아닌 의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비윤리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의도를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그 의도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비윤

리적 행위 인지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결국 성별과 윤리적 인지 사이의 관계는 긍정적, 즉 여자가 윤리적 인지에 상대적으로 보다 민감하다는 것이 다수이나(Luthar & Karri, 2005; Emerson & Conroy, 2004 등)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변수는 연령이다. Serwinek (1992)는 회귀분석에서 연령이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윤리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발견했다. Deshpande (1997)도 똑같은 행위라도 나이 많은 관리자일수록 더 비윤리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선행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연령과 비윤리적 행위와의 관계가 연령이 높을수록 윤리적 판단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호정, 2005).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Emerson & Conroy, 2004).

학력수준도 중요하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교육 수준이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에 중요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윤리적 민감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주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Rest, 1994 등). Deshpande (1997)는 자신의 연구에서 똑같은 행위를 두고도 학력수준이 높은 관리자일수록 보다 비윤리적으로 인지함을 발견했다.

또한 몇몇 연구자들은 종교를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대한 영향 변수로 검토했다. 예를 들어, Serwinek (1992)는 종교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ethics predictors)임을 확인했으나, Emerson & Conroy (2004: 173)은 그렇지 못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동조합원의 신분(union membership)은 한국의 공직사회 노동조합 운동의 기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미한 영향이 기대되는 변수이다. 공무원 노조가 그 활동의 근거와 정당성을 반부패 및 윤리성에서 찾는 까닭이다(이지문, 2005 참조).⁴⁾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과 비교해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더 엄격하고 민감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한편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에서 윤리교육(ethics education)이나 윤리적 인식 수준의 발달은 그 영향이 가장 직접적일 수밖에 없다. Clarkeburn (2002)은 대학이 제공하는 단기 윤리학 토론 과정(ethics discussion course)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이 과정이 학생들이 윤리적 문제를 깨닫는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 Luthar & Karri (2005)도 커리큘럼상의 윤리교육이 학생들의 윤리적 인식,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윤리적 인식 수준의 발달과 관련해, 도덕 발달(moral development) 이론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도덕발달의 수준은 특정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 또는 정당화에 요구되는 논리, 이유의 구성(reason for acting)을

4) 2002년 3월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첫 번째 강령으로 “우리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를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2005), 공무원노조 부정부패 척결 활동백서 참조.

둔하다고 설명한다. 만일 준수하고자 하는 것과 요구되는 규율 및 상황이 충돌할 때 개인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며, 이러한 갈등 인식은 도덕적 발달의 수준, 즉 윤리적 인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윤리적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윤리적 요소의 확인 및 딜레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윤리적 수준의 변화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3. 비윤리적 행위의 분야

비윤리적 행위의 유형은 행위 유발자, 동기, 내용의 심각성, 행위의 성격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 왔다(Johnston, 1986).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유형적 접근을 흔히 사람들의 비윤리적 행위 인지 민감성에 ‘세탁적 조건’(washing-out conditions)의 확인에 사용했다(Peters & Welch, 1980). 그러나 비윤리적 행위 분야의 유형화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역할 차이 확인에 중요하다(Henthorne et al., 1992). 분야별 접근(field-based approach)은 선행 연구들이 이미 검토한 바 있는 비윤리적 행위 인지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발자, 동기, 내용의 심각성, 행위의 성격 등의 다양한 조합을 포괄한다. 무엇보다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탐색과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이용한 인사 관리적 접근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적 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은 공직사회 비윤리적 행위의 발생 영역에 대한 업무 분야별 구분이다.

(1) 장비·시설 및 사무용품 분야

공공장비와 시설(컴퓨터, 팩스, 전화기, 복사기, 프린트 등), 사무용품(봉투, 필기용품, 종이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

(2) 근무 시간

근무시간 관련 규칙위반이나 사적인 이용

(3) 업무 수행

개인적 연고에 의한 결정, 편파적 업무처리, 내용 조작, 정보공유거부, 부족한 정보에 의한 결정, 누설, 책임(업무) 전가 등

(4) 예산 사용

예산 낭비, 업무추진비나 출장비 등의 부적절한 사용

(5) 상급자(기관)와의 관계

뇌물, 부당한 향응, 아첨, 허위보고, 청탁, 지시의 무시 등

(6) 개인의 언행

부동산 투기, 도박, 부적절한 언어 사용, 성희롱, 성차별, 남의 잘못을 부풀려 말하기, 잘못을 떠넘기기 등

(7) 민원인과의 관계

특정인에 부당한 편익 제공, 거짓말, 개인적 청탁, 접대, 금품 수수 등

III. 방법론

1. 도구와 자료수집

연구문제에 답을 얻기 위한 자료 수집은 응답자 기입 설문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비윤리적 행위의 분야별 유형 및 구체적 질문 항목은 행정대학원 공직분야 원생들과의 비윤리적 행위 분야에 관한 자유 토론을 통해 개발되었다.

질문지는 ‘이 조사는 공직사회 비윤리적 행위 정도의 인지와 배경변수 간의 관계 증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학술적 연구 이외 타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익명성 보장을 명기했다.

설문은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행위가 어떠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번호에 O 표시를 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제시한 후, 비윤리적 행위 7가지 분야에 관한 해당 문항들을 배치하였다. 응답은 ‘전혀 없다,’ ‘약간 있다,’ ‘보통,’ ‘많다,’ 그리고 ‘매우 많다’의 5점 척도로, 각각 1점에서부터 5점을 부여했다.

먼저 비윤리적 행위 각각의 분야를 측정하는 해당 문항과 척도의 신뢰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종교, 근무 연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이 도입되었다. 성별 응답은 남자=1, 여자=2로 값을 부여했고, 연령은 만 나이이며, 근무 연수가 몇 년인가를 물었다. 학력은 최종 학력으로 측정했고, 고졸 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 이상=4로 코딩되었다. 직급은 현재의 직급 기입을 요구했다. 종교는 어느 종교인가 및 행사 참여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후자는 ‘종교 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의 질문을 하고, 응답자는 ‘전혀 안 한다,’ ‘가끔 한다,’ ‘보통,’ ‘상당히 참석하는 편이다,’ ‘꼭 참석한다’ 중에서 선택했고, 코딩 값은 1점에서 5점이었다. 분석은 종교 행사 참여의 정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했다. 공무원노동조합원 여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이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가를 묻고, 가입의 경

우 1, 반대는 0으로 값을 지정했다. 극히 소수이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비노조원으로 분류되었다.⁵⁾

<표 1> 공직사회 비윤리적 행위 분야와 각 분야별 문항

분 야	문 항	전체 평균, 신뢰도
장비· 시설 및 사무용품	①통신기기(팩스, 전화 등)를 사적 용도에 사용한다. ②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 등)를 사적 용도에 사용한다. ③사무용품(필기 용품, 봉투 등)을 사적 용도에 사용한다.	3 문 항 m=1.83 $\alpha=.750$
근무시간	①근무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 ②근무시간 중 개인적 업무(사적인 만남 등)를 본다. ③근무시간 중 인터넷으로 사적인 일(주식, 오락 등)을 한다. ④근무시간 중 잡담을 한다. ⑤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다. ⑥근무지를 이탈한다.	6 문 항 m=1.51 $\alpha=.765$
업무수행	①결정에 연고를 개입시킨다. ②업무를 편파적으로 처리한다. ③내용을 조작한다. ④다른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⑤충분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린다. ⑥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다. ⑦다른 부서에 책임(업무)을 미룬다.	7 문 항 m=1.41 $\alpha=.783$
예산사용	①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다. ②출장비(여비 등)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 ③예산을 낭비한다.	3 문 항 m=1.31 $\alpha=.840$
상급자 (기관)와의 관계	①상급자에게 향응을 제공한다. ②상급자에게 듣기 좋은 소리(아첨 등)만 한다. ③상급기관에 허위 보고를 한다. ④상급기관에 개인적 청탁을 한다. ⑤상급기관의 지시를 무시한다. ⑥상급자에게 뇌물을 준다.	6 문 항 m=1.22 $\alpha=.854$
개인의 언행	①부적절한 언어(욕설, 고함 등)를 사용한다. ②성차별을 한다. ③성희롱을 한다. ④잘못을 남(동료나 부하직원 등)에게 떠넘긴다. ⑤남의 잘못을 부풀려 말한다. ⑥부동산 투기를 한다. ⑦도박을 한다.	7 문 항 m=1.25 $\alpha=.820$
민원인과의 관계	①친분있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②민원인에게 거짓말을 한다. ③특정 민원인을 위한 개인적 청탁을 관계 부서에 한다. ④민원인에게 접대를 받는다. ⑤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다.	5 문 항 m=1.19 $\alpha=.718$

5)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0호로 공포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 관한법률에서는 노조 가입 대상을 기본적으로 6급 이하로 국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조직 내 비윤리적 행위가 얼마나 많다고 인지하는가에 대한 직접적 영향변수로 공직윤리교육의 이수 및 윤리적 인식 수준의 발달을 측정했다. 공직윤리교육의 이수는 ‘귀하는 공직윤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의 선택 항목을 제시한 후, 응답에 대해 각각 1에서 5점을 부여하였다. 윤리적 인식 수준의 발달은 공직자가 비윤리적 행위의 증감을 얼마나 엄격, 민감하게 평가하는가, 즉 ‘지난 1년간 비윤리적 행위가 전반적으로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묻고, ‘크게 줄었다,’ ‘약간 줄었다,’ ‘그저 그렇다,’ ‘약간 늘었다,’ 그리고 ‘매우 늘었다’ 중 선택을 요구하고, 응답은 1에서 5점으로 처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5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대상은 중앙부처 2곳, 서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2개 구청, 경기도는 경기도청과 1개 시청,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도는 시청 또는 군청 가운데 각 1곳, 기타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 교육청의 총 17곳을 선정, 각 50부씩 850부를 배부했고, 74.5%인 633명으로부터 유효 응답을 받았다.

2. 표본의 성격

표본은 남자 405명(64%), 여자 228명(36%)이다. 종교는 불교 126명(19.9%), 기독교 120명(19.0%), 천주교 61명(9.6%), 유교 5명(0.8%), 기타 5명(0.8%)이었고, 316명(49.9%)은 없다고 응답했다. 평균 연령은 38.4세로, 만29세 이하= 60명(9.5%), 30세 이상 39세= 304명(48%), 40세 이상 49세= 232명(36.7%), 50세 이상= 37명(5.8%)이고, 학력은 고졸 이하 111명(17.5%), 전문대졸 109(17.2%), 대졸 372명(58.8%), 대학원졸 이상 41(6.5%)이었다. 근무 연수는 평균 12.9년으로, 9년 이하= 179명(28.3%), 10년 이상 19년 이하= 334명(52.8%), 20년 이상 29년 이하= 109명(17.2%), 30년 이상= 11명(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4급 이상 14명(2.2%), 5급 41명(6.5%), 6급 145명(22.9%), 7급 232명(36.7%), 8급 이하 201명(31.7%)이다.⁶⁾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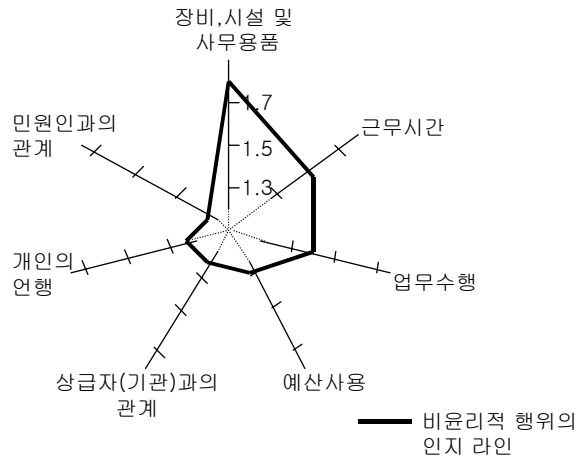
1)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 및 행위 분야별 비교

공직사회 행위 분야별 비윤리적 행위의 정도에 대한 인지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6) 자료수집 과정에서 직급별 대표성을 고려했으나 시의회, 교육청,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면서 8급 이하가 7급보다 적어졌다.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행위 분야별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



위 그림은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초한 공직사회 비윤리적 행위 정도에 대한 인지지도(perceptual mapping)이다. 응답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장비·시설 및 사무용품 분야, 즉 공공장비, 사무용품, 시설의 사적 이용을 가장 많이 보았다고 응답했고, 평균은 1.83이었다. 선택 응답이 ‘전혀 없다,’ ‘약간 있다,’ ‘보통,’ ‘많다,’ ‘매우 많다’이고, 각각 1점에서부터 5점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평균 1.83은 ‘약간 있다’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각각 근무시간 1.51, 업무수행 1.41, 예산의 비윤리적 사용 1.31, 상관급자와의 관계 1.22, 개인윤리 1.25, 민원인과의 관계 1.19의 순이다. 전반적으로 ‘전혀 없다’ 1점과 ‘약간 있다’ 2점의 사이이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공직사회 업무 수행 각 분야별로 비윤리적 행위를 어느 분야나 있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 수준은 ‘약간 있다’를 넘지 않는 정도임을 뜻한다. 또 어떤 분야의 비윤리적 행위를 보다 많이 인지하고 있는가를 시사한다. 그러나 표본의 공직자들, 다시 말해 중하위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닌 인지적 데이터(perceptual data) 분석의 결과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와 시민 간에는 부패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인지 차이가 크고, 공직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실재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2)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 관계

비윤리적 행위 인지와 인구통계학적 변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음에서는 응답자들이 비윤리적 행위가 많았다고 인지한 사무용품 분야와 그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난 민원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대표적 인구통계학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성별, 학력, 직급, 종교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의 많고 적음을 인지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하였다.

다음 <표 2>와 <표 3>은 그 결과이다.

<표 2> 장비·시설 및 사무용품 분야 (N=633)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차이	t(F) 값
성별	남자(405)	1.79(.57)	-.113	-2.395**
	여자(228)	1.90(.57)		
학력	고졸 이하(111)	1.86(.59)		.318
	전문대졸(109)	1.81(.52)		
	대졸(372)	1.82(.58)		
	대학원졸 이상(41)	1.88(.58)		
직급	5급 이상(55)	1.77(.54)		.867
	6급(145)	1.89(.62)		
	7급(232)	1.78(.57)		
	8급 이하(201)	1.85(.55)		
종교	있다(317)	1.82(.58)	-.022	-.476
	없다(316)	1.84(.56)		

주: 1) * $p<1.0$; ** $p<.05$; *** $p<.01$.

2) 직급분석에서 2-5급, 8급 이하는 각각 5,8급으로 재분류되었다.

장비·시설 및 사무용품 분야에서 비윤리적 행위 인지의 차이는 성별에서만 유의미했다. T-Test 결과 남성($m=1.79$)보다는 여성 공무원들($m=1.90$)이 지난 1년 동안 이 분야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했다. 남성보다는 여성 공직자들이 직원들의 통신기기, 사무용품, 사무기기 등의 공공시설이나 용품의 개인적 용도사용을 보다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본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어떠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윤리적 엄격성이나 민감도를 반영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성은 상위 직급에 여성은 보다 하위 직급에 주로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즉 누가 더 장비·시설 및 사무용품 분야에 노출되는 하위 직급의 일을 맡고 있는가의 결과 차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직급에 의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회귀분석을 통한 추가적 분석이 요구된다. 학력이나 직급, 종교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민원인 관련 분야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성별만 유의미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차이는 남성 공직자들이 평균 1.21로 여성 공직자의 그것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원인 관련 분야에서는 앞서와 달리 남성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비윤리적 행위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윤리적 행위 인지가 행위 분야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의해 차이가 나고 있음을 뜻한다. 직무 성격상 민원인 관련 분야에서는 남성이 여성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치되기 때문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선행 연구들이 확인하고 있는 비윤리적 행위 인지와 인구통계학적 변수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행위 분야별로 다르고, 누가 더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민감한가도 언제나 여성이 남성보다 민감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보다 많은 변수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비윤리적 행위 분야 2-6에 대한 분석에서도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학력, 직급, 종교에 따른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유의미한 인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민원행정 분야 (N=633)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차이	t(F) 값
성별	남자(405)	1.21(.31)	.050	1.995**
	여자(228)	1.16(.28)		
학력	고졸 이하(111)	1.22(.31)		.687
	전문대졸(109)	1.17(.24)		
	대졸(372)	1.19(.32)		
	대학원졸 이상(41)	1.16(.26)		
직급	5급(55)	1.14(.20)		.350
	6급(145)	1.19(.24)		
	7급(232)	1.21(.32)		
	8급(201)	1.19(.34)		
종교	있다(317)	1.20(.31)	.010	.423
	없다(316)	1.19(.29)		

주: * $p < .10$; ** $p < .05$; *** $p < .01$.

3) 행위 분야별 배경변수의 역할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이 행위 분야별로 각기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은 비윤리적 행위 분야 1-4만 유의미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또 유의미한 경우마저도 Adjusted R²가 전체 변량의 10퍼센트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먼저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은 어떤 분야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 윤리교육, 비윤리적 행위 증감 인식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1과 7의 평균차이 분석에서 유의미했던 성별도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하지 못했다. 분석 모형에 직급이 포함되었고, 직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이 낮은 직급에 더 많이 배치되는 등의 간접 효과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Serwinek (1992)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배경변수의 회귀분석에서는 나이가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령, 직급, 재직 연수 모두 유의미하지 못했다. 단 노동조합 가입만 분야 3과 7, 즉 업무수행과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했다. 하지만 분야 7은 모델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아 어떤 판단은 힘들다. 분야 3을 놓고 보면,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상

대적인 윤리적 인식 상의 엄격성은 부분적이나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종교 활동 참여의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대한 영향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반면 윤리교육이나 비윤리적 행위 증감에 대한 인식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했다. 특히 전자의 영향은 방향이 반대였다. 윤리교육이 많을수록 공직자 개인의 윤리적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조직 내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축소시켜 인지 기회를 줄이고 있음을 뜻한다.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 (N=633)

회귀 모형	독립 변수							상수	Adjusted R ²	F value
	성별	학력	직급	종교	노조 가입	윤리 교육	윤리 인식			
분야1	.116	-.037	-.034	.018	-.080	-.118***	.104***	2.137***	.087	5.313***
분야2	.002	.001	-.011	.005	.016	-.051* *	.071***	1.554***	.027	2.245**
분야3	-.049	.002	-.016	-.019	.085*	-.066***	.065**	1.631***	.036	2.691***
분야4	.031	.037	-.043	-.011	.092	-.065* *	.125***	1.377***	.045	3.135***
분야5	-.042	-.007	-.010	-.008	.046	-.045* *	.057**	1.370***	.014	1.618
분야6	-.016	.008	-.016	.006	.061	-.046* *	.051*	1.347***	.010	1.442
분야7	-.056	-.026	-.001	-.018	.068*	.023	.037*	1.268***	.011	1.507

주: 1) * p<.10; ** p<.05; *** p<.01.

2) 직급, 연령, 재직 년수간에는 multi-collinearity가 발견되어 직급만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3) 비윤리적 행위 분야1-7은 각각 장비·시설 및 사무용품, 근무시간, 업무수행, 예산사용, 상급자와의 관계, 개인의 언행, 민원인과의 관계이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비윤리적 행위 인지의 설명에 거의 주요한 영향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가입 정도가 비록 일부 분야에서이기는 하나 기대했던 것처럼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4) 노조 가입 여부의 영향

다음 <표 5>는 노조가입 여부가 행위 분야별로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드는가에 대한 T-Test 분석 결과이다.

분야 2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다. 노조가입자가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비해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보다 엄격하고 또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조 가입자들은 비가입자에 비해 지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

을 보다 많이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회귀분석의 그것과 배치된다. 그 이유는 공무원노조는 여성보다는 남성 공무원들의 가입이 훨씬 높은데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표 5>에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성별이 모형에 독립변수로 포함되면서 이러한 차이를 소멸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분야 1의 경우는 오히려 비노조원이 비윤리적 행위가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운데 성별과 노조가입 여부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노조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민감하나 분야별로 같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노조가입 여부에 따른 인지의 차이 (N=633)

구 분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t 값
	노조원(429)	비노조원(204)		
분야1	1.80(.58)	1.89(.55)	-.096	-1.980**
분야2	1.51(.40)	1.51(.38)	-.001	-.037
분야3	1.43(.46)	1.35(.39)	.078	2.075**
분야4	1.33(.57)	1.25(.55)	.087	1.800*
분야5	1.24(.42)	1.18(.33)	.065	2.135**
분야6	1.27(.42)	1.22(.32)	.051	1.682*
분야7	1.21(.31)	1.15(.28)	.067	2.629***

주: * $p<1.0$; ** $p<.05$; *** $p<.01$.

2.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분류되는 성별, 교육수준, 직급, 종교 등의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정도가 부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 한 가지는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에 대한 영향은 행위 분야별로 상당 부분 다르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역할이 분야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관적으로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와 배경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무원노조의 가입 여부도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에서 비조합원들과 차별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이었고 뚜렷하지는 못했다. 기타 이 연구의 직접적 관심은 아니었으나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는 윤리교육이나 비윤리적 행위의 추세에 대한 인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중요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들은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에 가장 고전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변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미 기대되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위 개선은 윤리 교육이나 그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배경변수의 통제로부터는 거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비윤리적 행위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았다고 생각하는지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그것을 얼마나 설명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종속변수인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는 일정 부분 응답자의 윤리적 민감도, 심각성 인지의 결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또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 인지 측정에 설문조사 방법을 적용했다. 이 방법을 통한 비윤리적 행위 인지의 측정 결과는 인지적 정보인데 비해, 똑같은 방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응답은 오히려 사실적 정보에 가깝다. 이것은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왔던 것이나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와 배경변수 간에는 자료의 성격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낮은 영향관계의 결과는 일부 이것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기타 비윤리적 행위 인지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부패인지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80 퍼센트 이상이 공직사회에 부패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는데 비해, 공무원은 20 퍼센트 정도만 그렇다고 응답하는 식이다.⁷⁾ 따라서 이것을 통한 실제 공직사회 비윤리적 행위의 수준 확인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V. 결 론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분야별로 이들의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 구체적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공무원노조 조합원인가의 여부가 한국 공직사회 비윤리적 행위 인지에 주요 변수인가? 이 연구에서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분야별 인지 척도를 개발 후, 위의 의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유의미한 영향은 없거나 매우 미미했고, 공무원노조 가입 여부 정도가 비윤리적 행위의 일부 분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부 연구자나 NGO 등은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부패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다 강하게 인지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조절, 즉 여성 공직자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7) 한길리서치연구소(2002.10)의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관련 국민여론조사보고서’를 보면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에 88.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한길리서치연구소(2002.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176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여론조사 보고서’에서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심각한 편이다’에 28.1%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9월 국가청렴위원회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60.8%가 공직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공무원은 단지 2.4%만이 그렇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윤리교육 등의 고전적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가청렴위원회가,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전담기관인 특별조사국 (Office of Special Council, OSC)에서 i) 기관 시설물에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안내 포스터 부착 ii) 직원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내부고발자 보호 교육 포함 iii) 기존 직원에 대해 주기적 내부고발자 보호 교육 iv) 간부직에 대해 내부고발자 보호 훈련 v) 기관의 홈페이지에 OSC 홈페이지에로의 링크 버튼 설치와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교육 합격 인증을 내주기로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⁸⁾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내부고발 교육인증제 도입 방침을 정한 것⁹⁾은 내부고발뿐만 아니라 반부패를 포함한 윤리교육 전반에도 도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경우 기관장과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공직윤리 및 반부패 교육의 의무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 정책수단의 개발이나 효과 확인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가청렴위원회 (2005). 부패방지 표준 교육교재
- 김호정 (2005).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이 공직자의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39(4): 125-148.
- 이지문 (2005). 공무원 노조 부정부패 추방 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노조 부정부패 척결 활동백서, pp.192-213.
- Ameen, E.C., Guffey, D.M., & McMillan, J.J. (1996). Gender differences in determining the ethical sensitivity of future accounting professional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5): 591-597.
- Charkeburn, H. (2002). A test for ethical sensitivity in sci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4): 439-453.
- Deshpande, S.P. (1997). Managers' perception of proper ethical conduct: The effect of sex, age, and level of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1): 79-85.
- Deshpande, S.P., Joseph, J., & Maximov, V.V. (2000). Perceptions of proper ethical conduct of male and female Russian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4(2): 179-183.
- Ekin, M.G.S., & Tezolmez, S.H. (1999). Business ethics in Turkey: An empirical investigation with special emphasis on gender. *Journal of Business Ethics*, 18(1): 17-34.
- Emerson, T.L.N., & Conroy, S.J. (2004). Have ethical attitudes changed? An

8) 부패방지위원회 해외 주요 언론·정책 Brief 제02-04호(2002.3)

9) 국가청렴위원회 보도자료, 부패청산, 이제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 (2005.11.24)

- intertemporal comparison of the ethical perceptions of college students in 1985 and 2001. *Journal of Business Ethics*, 50(2): 167-176.
- Glover, S.H., Bumpus, M.A., Logan, J.E., & Ciesla, J.R. (1997). Re-examining the influence of individual values on eth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12/13): 1319-1329.
- Glover, S.H., Bumpus, M.A., Sharp, G.F., & Munchus, G.A. (2002). Gender differences in ethical decision making. *Women in Management Review*, 17(5): 217-227.
- Henthorne, T.L., Robin, D.P., & Reidenbach, R.E. (1992). Identifying the gaps in ethical perceptions between managers and salesperson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11): 849-856.
- Johnston, M. (1986). Right & wrong in American politics: Popular conceptions of corruption. *Polity*, 18, 367-391.
- Luthar, H.K., & Karri, R. (2005). Exposure to ethics education and the perception of linkage between organizational ethical behavior and business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61(4): 353-368.
- Peters, J.G., & Welch, S. (1980).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697-708.
- Rest, J.R. (1994). Background: Theory and research. In J.R. Rest & D. Narvaez (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1-2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oxas, M.L., & Stoneback, J.Y. (2004). The importance of gender across cultures in ethical decision-mak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50(1): 149-165.
- Serwinek, P.J. (1992). Demographic & related differences in ethical views among small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7): 555-566.
- Sparks, J.R., & Johlkee, M. (1996). Factors influencing student perceptions of unethical behavior by personal salespeople: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8): 871-887.
- Swenson-Lepper, T. (2005). Ethical sensitivity for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ssues: Examin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59(3): 205-231.
- Tsalikis, J., & Ortiz-Buonafina, M. (1990). Ethical beliefs' differences of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6): 509-517.
- Wahn, J. (2003). Sex differences in competitive and compliant unethical work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8(1): 121-128.
- Walsh, J.P. (1995). Managerial and organizational cognition: Notes from a trip down memory lane. *Organizational Science*, 6, 280-321.

저자약력 : 저자 이상윤(李相潤)은 1984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부총장직을 맡고 있다. 인사행정이 전공분야로 '한국행정학보' 등 관련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고, 저서로는 「인사행정론」(대왕사, 1990), 「공무원인사제도론」(대왕사, 2000) 등이 있다.

저자약력 : 저자 이지문(李智文)은 1996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연구원을 맡고 있다. 내부고발 및 반부패가 전공분야로 '한국부패학회' 등 관련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였고, 저서로는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행정DB, 2003)이 있다. 현재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저자약력 : 저자 박흥식(朴興植)은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교수로, 1991년 미국 FIU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내부고발의 논리」(1999), 「글로벌 시대 지방정부의 문화마케팅 전략」(2003) 등의 저서와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Journal of Business Ethics 등 행정 및 정책 관련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현재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이다.